

<토론글>

‘주말부부의 주거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 대해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조성희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도된 시의적절한 연구라 생각된다. 특히, 다양한 가족의 삶 중에서 “주말부부”를 구체적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말부부라는 호칭이 가지는 생활근거지의 문제를 주 연구과제로 풀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 연구방법에서는 계량적 분석보다는 심층분석을 통한 질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가족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의 해석에 앞서, 이 연구의 연구 주제가 사회학, 가족학, 여성학, 주거학 등과 연계된 다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현재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이란 어떤 것인가? 왜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나타나는가? 우리 삶에서 사회지원체제와 혈연지원체제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등등. 이러한 질문들은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배경으로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고 알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담해 줌으로써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1세기 후기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접하게되는 무수한 사회문화적인 충격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 오히려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러니컬한 생활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한다. 사회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요구는 경제활동과 맞물려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가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라는 사회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당위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혼여성의 취업은 단순히 직업을 통해 사회참여나 자기실현의 기회를 가진다는 해석에 앞서 “맞벌이 부부”라는 시각에서 접근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우리사회의 가족제도 등을 바탕으로 하는性に 따른 역할구조가 평등사회라는 사회정의적 구조에 우선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말부부”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 즉, 주말부부를 기타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게 된 삶의 유형으로 볼 것인지, 특별히 맞벌이부부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한 유형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유형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시각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문제를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심층 면접에서의 면접내용을 정리하는 틀을 짜는 바탕이 될 뿐 아니라,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일관성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질적 연구에 따른 효과라 할 수 있는 결과의 연계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이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된다.

조사 결과의 분석부분은 주말부부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 결과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주제에 대

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가 초기 연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결과들에 대한 보다 신중한 논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대상이 된 피검자들의 선정이, 연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 직업영역으로 한정되고, 여성응답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과 같은 표집문제에 의해 실제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조사 결과의 질적 분석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의 정리가 전반적으로 피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마무리지어짐으로써 심층적인 면을 찾으려는 연구의 기본 취지가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